

# 우즈벡이 낳고 한국이 키운... 모델 겸 크리에이터 '카리모바 엘리나'

유튜브·틱톡·SNS서 '리나대장'으로 활약 중  
서든어택 캐릭터 출시·MLB 등서 모델 활동  
5세 때 어머니 따라 귀화...아버지는 한국인  
"학창 시절, 조용하고 소심...카메라는 친구"  
"노래·사진 공부하고 싶어...솔로 앨범 생각"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 SNS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드리고 있는 엘리나라고 합니다."  
모델 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카리모바 엘리나(24)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순이엔티에서 진행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  
주목만한 얼굴에 커다란 눈과 오뎅 코, 금발 머리로 서구적인 외모를 가졌으나 그의 국적은 엄연히 대한민국이다. 5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따라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엘리나는 인터뷰 내내 유창한 언어 구사력을 보여줬다.  
엘리나는 "어머니가 처음 한국에 여행을 오시고 나서 매력에 푹 빠지셔서 귀화했는데 저도 같이 그때 따라와서 살게 됐다"며 "아버지는 (태생이) 한국인이시라"고 말했다.  
노래·뷰티·춤 영상을 주 콘텐츠로 삼고 있는 엘리나는 유튜브 105만여명·인스타그램 314만여명·틱톡 1290만여명의 팔로워(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그는 "노래나 일상을 공유하기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했었다"며 "틱톡 같은 경우에는 짧은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는데 반응도 빨라서 재미를 붙여 시작했던 것 같다"고 영상 플랫폼에 뛰어든 계기를 전했다.  
이어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내 영상을 끝까지 볼까', '댓글을 남기고 싶을까' 생각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편"이라며 "아무래도 영상의 퀄리티가 높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다. 또 볼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외적인 부분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이어진 물음에는, "조금"이라고 답하며 수줍게 웃었다.  
카메라 앞에서 장난기 넘치고 익살스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멋진 포즈를 취하는 데 거리낌 없어 보이는 엘리나는 어릴 적부터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고 한다.  
그는 "학창 시절 내내 조용하고 소심한 편

이었던 것 같다. 친해지면 되게 잘 지내는 성격인데 낯을 꽤 가려서 힘들었던 적도 있다"며 "아직도 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카메라와 친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표현하기가 쉽다"고 언급했다.  
또 "제 끼를 다 보여드릴 수 있을 때 (영상 플랫폼 활동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진으로만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 동영상에 제한돼 잘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메이크업과 간단한 춤 영상 외에도, 국내의 유명 아티스트 곡을 따라 부르는 이른바 '커버'가 주 콘텐츠다. '음색이 뛰어나다'는 호평이 이어지지만, 전문적인 트레이닝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노래나 동영상·사진 촬영 같은 게 좋아하는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시간을 투자해보려고 한다"며 "(앞선 듀엣 앨범 외에 추가로) 솔로 앨범 발매를 생각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동시에 일상 브이로그 콘텐츠도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도 전했다.  
엘리나는 "브이로그나 일상 공유도 유튜브에 좀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스킴이 있는지 이런 걸 편하게 풀어볼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크리에이터로서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2019년 서든어택 캐릭터 출시를 꼽았다.  
엘리나는 "제 캐릭터가 출시되고 게임에 접속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캐릭터로 플레이를 해주셨다"며 "팬분들만이 아닌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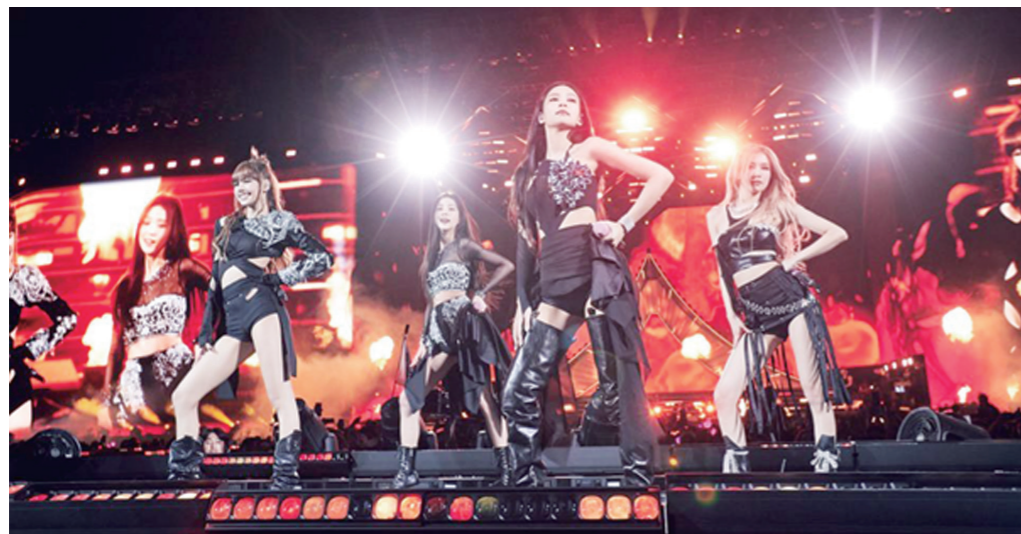


반 유저분들도 사용해 주시는 걸 보고 기분이 묘하면서 좋고, 감사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사실 엘리나의 첫 직업은 모델이다. 19살 무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안을 통해 에이프릴스킨 모델로 처음 일을 시작했고, 엠엘비(MLB)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그는 "(모델로서는) 항상 완벽해야 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언제나 있다"면서도 "그게 또 장점으로 저를 오히려 성장하게 만들어준 것 같다. 더욱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지난 달 진행된 서울패션위크에서 메이크업부터

런웨이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담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샤넬"과 같은 해외 명품 브랜드까지 진출하고 싶다는 엘리나. 모델로서의 전문성도 꾸준히 키워나가는 동시에 노래 실력을 갈고 닦은 뒤 앨범도 내고, 재밌는 영상과 브이로그를 다루는 크리에이터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싶다는 욕망을 거듭 내비쳤다.  
팬들을 향해선 "팬분들이 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제 가족 같다고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응원해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사랑한다"고 전했다.  
뉴스스

## 기와지붕 세트·부채춤...YG가 전한 블랙핑크 美 코첼라 뒷얘기

美 LA타임스·英 가디언, 화려한 무대·연출 조영



그룹 '블랙핑크'가 K팝 그룹 최초로 미국 대형 음악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2023' 헤드라이너로 나서 주목 받은 가운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무대 뒷얘기를 전했다.  
17일 YG에 따르면, 블랙핑크는 지난 15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인디오의 사막지대 코첼라 밸리에서 헤드라이너로 나서 '코첼라'에 걸맞은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 문화 전반의 트렌드를 교류하는 축제의 장에 맞춰 무대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블랙핑크 무대 세트에서 내내 눈길을 끌었던 건 한옥 양식의 기와지붕이었다. 이에 대해 YG는 "한국 건축 전문가의 자문과 역사적 고증을 거친 한옥 무대 구성으로 전세계 음악 팬들에게 한국 고유의 미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LA타임스는 이날 블랙핑크 무대에 대해 "제니, 로제, 지수, 리사는 코첼라 쿨(cool)과 K팝의 '교묘한 기술'(razzle-dazzle)을 잘 섞어냈다"면서 "킬 디스 러브', '키 잇', '하유 유 라이크 댓'을 부를 때 우뚝 솟은 절 지붕(temples roof·기와를 이렇게 표현) 아래에서 움직이며 거대한 무대를 최대한 활용했다"고 봤다.  
또 '타이파 걸'(tyra girl) 무대에선 뮤지컬 '시카고' 소품을 연상케 하는 대형 깃털 부채를 댄서들이 들고 블랙핑크 멤버들과 합을 맞췄는데 YG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 부채춤을 활용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코첼라'만을 위해 준비한 라이브 밴드 편성의 편곡,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쇼와 폭죽, 화려한 무대 연출 등이 더해졌다. YG는 "수

년간 YG의 투자를 함께해온 국내 스태프, 세계 프로덕션 전문 인력이 의기투합했다"면서 "24명의 댄서들과 멤버들이 함께 선보인 퍼포먼스는 3개월에 걸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LA타임스는 "코첼라가 미적, 재정적, 세대 등의 이유로 몇 년 전부터 팝과 힙합을 수용하면서 인디·얼트 록 중심의 축제에서는 오랫동안 맡아졌다"면서 "블랙핑크가 가공할 만한 드론 무리를 띄운 후 '핑크 베놈'으로 공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들의 세트 역시 다르게 느껴졌다. 2018년 비온세가 코첼라에서 역사를 쓴 이래로 가장 큰 규모, 기술 그리고 강렬함이 어땠다"고 평했다.  
영국 가디언 역시 이번 블랙핑크의 코첼라 무대에 대해 "확실히 헤드라이닝 세트를 위한 스태미너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는 산업 지향적인 아레나 팝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레이저·불꽃놀이·회전하는 조명 뿐 아니라 코러스의 하모니와 정밀한 안무가 내뿜는 열기에 관객의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일부에선 올해 코첼라 첫째 날인 14일 헤드라이너로 올랐던 푸에르토리코 출신 라틴 팝 스타 베니의 무대를 블랙핑크와 비교하는 시선도 나왔다. 베니는 화려한 무대 구성보다 라틴팝과 고국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더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다만 블랙핑크 역시 기와지붕과 부채춤 등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무대에 녹여냈고 객석에서 태극기가 펼쳐졌다는 점에서 갈수록 무국적성으로 무장하는 K팝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냈다는 평도 나온다. 가디언은 "베니에 비해 블랙핑크는 할 말이 적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다"고 했다.

## 40년간 은폐 JMS 성추문 추적...2시간 특집



'그것이 알고싶다'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성추문 사건을 파헤친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22일 오후 10시 'JMS, 달 박골 청년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나' 편을 내보낸다.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편성, 약 2시간 동안 특집 방송한다. 1999년과 2002년, 2007년 정명석의 성범죄 의혹을 보도한 데 이어 네 번째다. 이번엔 JMS 초창기 멤버와 현재 조력자 등 정명석 주변인을 추적한다. 약 40년간 의혹 대한 진실감 그리고 레이저·불꽃놀이·회전하는 조명 뿐 아니라 코러스의 하모니와 정밀한 안무가 내뿜는 열기에 관객의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일부에선 올해 코첼라 첫째 날인 14일 헤드라이너로 올랐던 푸에르토리코 출신 라틴 팝 스타 베니의 무대를 블랙핑크와 비교하는 시선도 나왔다. 베니는 화려한 무대 구성보다 라틴팝과 고국의 정체성을 알리는데 더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다만 블랙핑크 역시 기와지붕과 부채춤 등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무대에 녹여냈고 객석에서 태극기가 펼쳐졌다는 점에서 갈수록 무국적성으로 무장하는 K팝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냈다는 평도 나온다. 가디언은 "베니에 비해 블랙핑크는 할 말이 적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다"고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22일 방송

명석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수기가 게재됐다.  
정명석은 여신도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2001년부터 홍콩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로 해외 선교 명목의 도피를 이어갔다. 2007년 중국 북경에서 체포, 국내로 송환돼 재판 받았다. 2009년 4월 강간치상·준강간·준강제추행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2018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후 정명석에게 또 다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도가 등장했다. 한 신도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공개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냈다. 정명석의 과거 범행까지 재조명 돼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피해자 제보가 이어졌다.  
신도들은 교단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성적 피해를 봤다고 폭로했다. 제작진은 정명석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자 진술을 교차 검증하고, JMS 교단 내 폐쇄적이고 고질적인 시스템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

## 세븐틴 'FML' 더블 타이틀곡 공개...'손오공'

그룹 세븐틴의 미니 10집 'FML'의 더블 타이틀곡이 베일을 벗었다.  
세븐틴은 18일 공식 SNS에 오는 24일 오후 6시에 발매되는 미니 10집 'FML'의 숨겨진 타이틀 모션 포스터와 함께 2차 트랙리스트를 게재하며 더블 타이틀곡 명 '손오공'을 최초 공개했다.  
'손오공'은 세븐틴을 고전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과 같은 에너지로 표현한 곡이다. 다른 타이틀곡 'F\*uck My Life'에는 세븐틴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푸념이 담겼다.  
더블 타이틀곡 제외, 미니 10집 'FML'에는 각각의 유닛 곡인 '파이어(Fire, 힙합팀)', '아이 돈 언더스탠드 뱃 아이 러브 유(I Don't Understand But I Luv U, 퍼포먼스팀)', '먼지'(보컬팀), 단체 곡 '에이프릴 샤워(April shower)' 등 총 6곡이 수록된다. 이번 앨범은 프로듀서 우지을 필두로 에스웬스, 호시, 원우, 민규, 베는, 디노도 작사 혹은 작곡에 참여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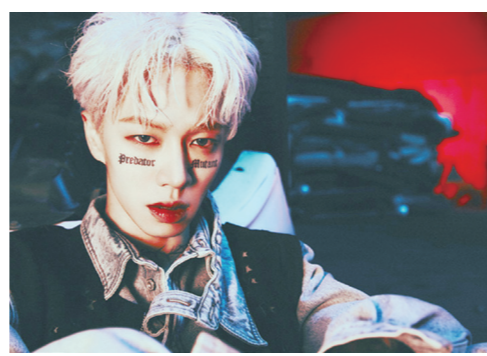


다.  
소속사 플레디스에 따르면 세븐틴은 'FML'을 통해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끝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기보다는 '스스로 비관하며 좌절하는 대신 지치지 말고 함께 싸워 이겨 내자'며 긍정적인 관점에서 청춘의 갈등과 방황을 이해하고,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건넬 예정"이다.  
한편 세븐틴은 오는 20일 하이라이트 메들리, 21~22일 오페럴 뮤직비디오 티저 등 다양한 신보 프로모션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 이기광 '프레데터' 아이튠즈 12개 지역 톱 앨범 차트인

솔로 정규 1집, 국내외 차트 안착  
가수 이기광의 솔로 정규 1집 '프레데터(PREDATOR)'가 국내외 차트에 안착했다.  
지난 17일 발매한 이기광의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프레데터'는 국내 음원 사이트 벅스의 실시간 차트 11위를 차지했다.  
수록곡 '페이보릿(Favorite)', '아름답게(I Can't Do This)', '불안(Anxiety)', '아임 낫 유(I'm Not You)', '유니버스(Universe)' 등 12곡 전곡이 5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아이튠즈에서도 차트 1위, 필리핀·싱가포르·태국·홍콩·인도네시아·대만 등 7개 지역 톱 5를 비롯해 일본·이탈리아·캐나다·독일까지 총 12개 지역 톱 앨범 차트에 진입했다.  
이날 이기광은 '프레데터' 발매 직접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과 함께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진행했다.  
그는 "아티스트 이기광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고 밝히며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



과 행복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전했다.